

제16회 바다의 날 행사 고성서 개최

국토해양부 주관 이달 28일~6월4일까지 ... 해양심층수축제 · 관동별곡 800리 문화축전 병행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제16회 바다의 날 행사가 이달 28일부터 6월 4일까지 5일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화진포 광장 일원에서 전국 지방해양환경청과 해양경찰서, 해군 및 해병대, 어업 관련 기관단체, 어민 등 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고성군이 주최하는 해양심층수축제와 관동별곡 800리 문화축전 등이 함께 열려 고성군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심

층수 축제는 해양심층수 체험 및 시식회, 관동별곡 800리 문화축전은 해안누리길 걷기와 자전거 투어 등이 진행된다.

기념식은 '바다의 날'인 31일 오전 11시 개최된다.

오전 10시부터 식전 행사로 홍보영상물 상영, 해군 군악대 및 의장대 시범, 해양소년단 공연, 고성합창단 공연이 열린다. 또 해양합창, 어업지도선, 어선, 요트, 윈드서핑, 카이트보드, 제트 스키 등이 참여한 해상퍼레이드

도 펼친다.

오전 11시에 막이 오르는 기념식은 개식선언, 해양소년단 학생의 바다헌장 낭독, 인사말, 환영사, 고성군의 비전소개, 유공자포상 등의 순으로 성대하게 진행된다.

이어 식후행사로 바다의 날 기념 작은음악회, 비보이공연과 함께 명태를 비롯한 고성지역 향토 음식을 소개하는 고성 진미 시식회 등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 고성군

수배 바다낚시대회와 요트, 해양 래프팅, 카누 등의 해양스포츠 체험교실이 열린다. 모래조각관람, 바다수중 정화활동, 수산종묘 방류, 바다사생대회 등도 펼쳐진다.

[바다의 날] 유엔해양법협약 발효(1994년 11월)를 계기로 해양 자유이용 시대에서 해양분할 경쟁 시대로 바뀌면서 해양을 둘러싼 국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계 해양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1996년 제정한 법정 기념일. 국토해양부

가 주관한다.

매년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한 것은 통일신라시대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하고, 또 국민 축제 시기에 적합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이 날 행사는 전국 지방해양환경청과 해양경찰서, 해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 등에서 각각 특성에 맞는 행사를 개최한다. 주로 항만 및 바다 청소, 국민 계몽, 수산자원 보호 등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최광호 기자

제20회 국민생활체육 강원도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 열려



제20회 국민생활체육 강원도 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가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고성종합체육관을 비롯해 지역내 2개 체육관에서 분산 개최됐다.

강원도배드민턴연합회가 주최하고 고성군배드민턴연합회가 주관한 제20회 국민생활체육 강원도 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가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고성종합체육관을 비롯해 지역내 2개 체육관에서 분산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선수와 임원 등 1,100여명이 참가해 지역과 클럽의 영예를 걸고 한판 승부를 겨뤘다.

대회를 주최한 강원도 배드민턴연합회 한영운 회장은 대회사에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받기까지 배드민턴을 즐기고 오늘과

같은 대회에 적극 참여해 준 동호인의 열정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승부를 떠나 그동안 대회를 위해 연마해 온 기량을 맘껏 펼치고 우정과 친선을 더욱 돈독히 해 즐겁고 아름다운 만남의 장이 되는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체육진흥기금 36명에 지급

고성군체육진흥기금 장학금지급 대상자 선발

고성군에 거주하는 체육 선수들의 사기진작과 엘리트 체육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2011년 고성군체육진흥기금 장학금지급 대상자가 최종 선발됐다.

고성군은 지난달 5일부터 15일까지 2011년 고성군체육진흥기금 장학금지급 대상자를 모집해, 지난달 29일 선발심의를 거쳐 총 36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선발결과 초등학생은 20만원씩 13명, 중학생은 30만원씩 7명, 고등학생은 50만원씩 10명, 대학생은 100만원씩 6명 등 총 36명에게 1천57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방식은 5월초에 초·중고등학생은 해당 학교장

이 전수하고, 대학생은 황종국 군수가 직접 장학증서를 전수하게 된다.

고성군체육진흥기금은 2001년 1월에 기금조성을 목표로 설치해 9년에 걸쳐 군비출연금 5억원, 지정기탁금 및 이자수입 등을 통해 2010년에 목표액을 달성하고, 올해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게 됐다.

고성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 유망선수 발굴과 엘리트 체육 활성화 등 고성 체육의 미래를 위해 고성군체육진흥기금에서 지급되는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많은 우수 재능 선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산불 조심

고성을 빛낸 호국인물 [9]

독립운동가 권기수(權基洙)

1893년 1월 21일 ~ 1922년 1월 9일

독립운동가로 고성군 간성 출신이다.

다른 이름(異名)으로 쌍라(雙羅)·쌍희(雙喜)이며, 호는 청계

(淸溪), 자는 성원(聖原)이다.

1896년 을미의병(乙未義兵) 당시 강릉의병으로 활약하던 소은(巢隱) 권인규(權仁圭)의 손자

이며 후기의병에서 활약한 의병장 성과(檉坡) 권종해(權鍾海)의 장남으로 부친의 행적 때문에 일본군에 잡혀 모진 고통을 당

하기도 하였다.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받아보고 동지들과 함께 강원도 영월·평창·정선지역에서 독립만세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그해 일경에게 체포되어 함흥감옥에서 6년형을 선고받고 4년 동안 수감되어 있던 중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건국에 이바지한 공훈을 기리어 1968년

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으며, 199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출典:『한국독립사(韓國獨立史)』金承學 下卷, p.p.82~83

『한국독립운동사(韓國獨立運動史)』p.512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제공〉 (010-5373-2156)